춘송리고분군 역사적 가치 조명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 위한 학술대회 가져

장수군은 지난 6일 천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춘송리고분군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군산대, 숭실대, 국가유산진흥원 등 학계 관계자 및 천천면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과 보존·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2023년 시굴조사에서 총 9기의 고분이 확인했고 이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 학술발굴조사를 거치면서 이 유적이 6세기 말 신라에 의해 조성된 고분군이라는 시대상이 구체화된 바 있다.

이날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는 '마한에서 후백제까지 장수군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장수지역의 고대사 흐름과 문화적 층위를 폭넓게 짚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춘송리고분군 A4호분 발굴성과, A11호분 발굴성과, 춘송리 고분과 침령산성의 사례로 본 신라 지방세력,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과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되며, 춘송리고분군이 장수지역 고대사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다각도로 논의됐다.

장수군은 지난 6일 천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춘송리고분군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표마다 지정 방향과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 학술 성과와 행정 실천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특히 종합토론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춘송리고분군의 역사적 성격, 침령산성과의 연관성, 신라의 지방 지배 구조 속 장수의 위상, 향후 기념물 지정과 활용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단순히 "유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보존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지역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를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가 컸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은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진안형 기본소득' 주민 의견수렴

군, 온 · 오프라인 설문조사 · 이장회의 순회 설명 등 군민과 소통

진안군은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군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읍·면 이장회의 순회 설명을 통해 군민들과 소통하며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먼저 군은 지난 2월 27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진안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배부되는 설문지를 통한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되며, 기본소득에 대한 군민 인식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지난 6일 부귀면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관내 11개 읍·면 이장회의를 순회 방문하며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군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공청회와 기본소득위원회 심의, 군의회 보고를 거쳐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5월 신청 접수를 거쳐 6월 중 첫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축제심의위원회 개최 지역 축제 발전방향 모색

진안군은 지난 6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군 지역축제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진안군 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진안군 축제심의위원회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 지역축제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됐다.

14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년 지역축제 성과와 2026년 지역축제 추진계획 보고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지난해 개최됐던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진안고원 수박축제, 진안홍삼축제,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에 대해 각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졌다. 진안홍삼축제는 '2026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마을축제 최우수축제',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축제 육성축제'로 선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이 이어졌다.

이어진 향후 개선 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 시간에서는 축제와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축제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모색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청년농업인 전문 컨설팅 대상자 모집

진안군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전문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와 후계농 등 청년 농업인으로 총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컨설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bitby373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제사1970 유휴공간, 청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무주군,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최종 선정

무주군이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 청년 정착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핵심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주군에서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무주그린'으로, 무주읍 옛 제사공장 부지에서 운영 중인 '전북제사1970' 유휴공간을 청년 주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무주, 잇다'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역 청년들이 공간 조성부터 상품 기획과 판매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로컬 편집숍 운영, 무주 특화 관광상품 개발, 청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문화행사 개최 등이다.

무주그린은 상설 로컬 편집숍을 통해 무주군 농특산물과 지역 자원을 전시·판매하는 거점을 마련하고 천마빵과 양갱 등 디저트 상품을 비롯해 우산과 마그넷 등 관광 기념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청년 판매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정기 벼룩시장과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음악회, 전통문화 체험 등 참여형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활동 펼친다

무주군이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곳과 다발생지역 5곳 등 주요 서식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화 활동은 반딧불이 서식 환경을 보전하고 신비탐사지로 활용되는 주요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 기간 동안 서식지 인근 마을 주민 20여 명이 참여해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과 잡목, 하천변 생활 쓰레기 등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이번 활동을 통해 반딧불이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 생태탐사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무진장지사는 올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99억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6억원, 과원규모화 9억원,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2억원 등 총 12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99억원을 배정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을 적극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된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대위변제 등을 통해 부채 상환을 돕고, 해당 농업인에게 7년에서 10년 동안 매입 필지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임차기간 동안 매도한 필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다. 환매 시에는 필지별로 감정평가 환매와 정책요율 환매(고정요율 또는 변동요율중 선택)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환매가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최장10년) 할수 있다. 참여 자격은 영농경력(경영체 최초등록일기준) 2년이상의 70세 미만 농업경영체(65세~69세 이하자 진흥구역 농지)로,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 대상은 전·답·과수원인 농지 및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다. 매입 상한은 6~11.3만 원/㎡이며, 지원금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15억원, 농업법인의 경우 20억원이다.

또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10ha 규모의 고령농 소유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할 계획이다. 소득이 낮아 은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고자 만든 제도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다. 65~84세의 고령 농업인이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개인에게 이양하면 농지 매도 대금에 더하여 직불금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10년간 1ha당 매도시 연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